

교회 및 지역 소식

마산 지방부 탄생

지난 8월 8일 마산에서는 마산 지방부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첫 대회를 가졌다. 마산을 중심으로 진해 진주를 포함한 마산 지방부는 지난 7월 11일 부산 지방부 대회에서 분리되어 윤덕병 형제를 지방부장으로 지지하였고 그 후 처음으로 대회를 가진 것이다.

이 대회를 통하여 지방부장단 1보좌에 이 중훈 형제, 2보좌에 우 상운 형제, 서기에 김 만금형제, 집행서기에 최 정환 형제, 평의원에 김 치우 형제, 최 정환 형제, 황 효연 형제가 각각 성임되었다.

본 지방대회는 각 지부로부터 온 166명의 성도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성도들은 오랫동안 지방부가 세워지기를 갈망했는데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져 보다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껏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12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온 마산지방부장 윤 덕병 형제는 서울 스테이크의 제 2 와드 출신이며 마산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부산 선교부에서는 5 번째 지방부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 인상 선교부장, 장 재환형제, 김 백주형제가 참석하여 자리를 한층 더 빛내 주었다.

또한 총회에서는 조용환 형제가 마산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200여권의 물문경을 주위에 전한바 있는 강영형제가 대신권을 받고 지부장단 2보좌에 부름을 받았다.

부음 토론을 마쳤으면서도 침례 받기를 주저하던 어느 한 구도자는 선교부장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즉시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 육환, 박 정욱 형제 연차대회 참석차 도미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 2 보좌인 최 육환 형제와 제 9 와드 감독인 박 정욱 형제가 교회 제 146 차 반년차 대회에 참석차 지난 9월 30일 도미하였다.

본 교회 연차 대회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에서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대회 참석자들은 교회 총관리역원들의 말씀을 듣는 본 대회와 신권회 및 기타 각각 방문자들을 위해 마련된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본부의 지시와 교육을 받게 된다.

교회 및 지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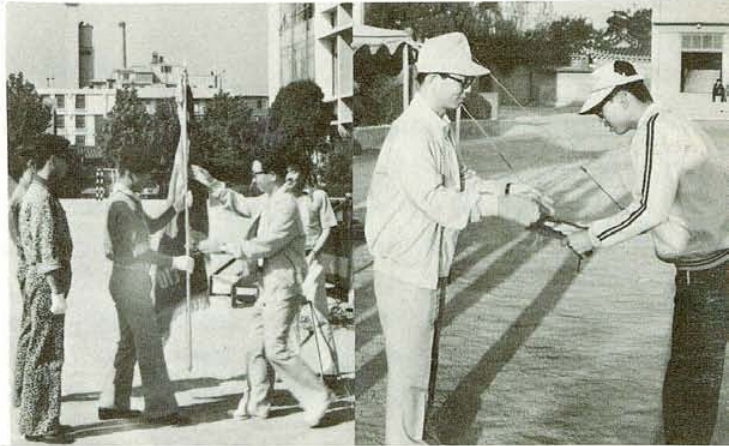
제 3 회 서울 스테이크 운동회 개최

서울 스테이크는 10월 9일 연례 행사로 갖는 스테이크 운동회를 6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구 용두동에 자리잡은 동대문 상고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햇볕 점화와 선서식으로 막을 올린 대회는 오전에 리레이 경기와 축구를 가졌고, 오후에는 오락게임으로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개구리 뽀뽀기, 성인들의 장애물 경기, 자전거 릴레이, 단축 마라톤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개구리 뽀뽀기는 귀여운 재치와 애교를 보여주어 어른들의 갈채를 받았고 성인들의 사다리 통과 게임, 자전거 릴레이 등은 물론 성도들의 건각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제 7 와드가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에는 제 1 와드가, 장려상에는 제 2 와드가 차지하였다.



이 도환 형제

신학 연구원 교수로 부름 받음

경기 인천 지방부 화곡 지부 지부장단 제 1 보좌로 수고하는 이도환 형제가 이번 학기부터 신학 연구원에서 강의할 맡게 되었다.

1964년 8월 부산 지부에서 침례를 받은 이 형제는 부인 김 재숙 자매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둔 성실한 가정으로 경북대학 사대 역사과를 졸업한 후 브리감 영 대학 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최근에 귀국했다.

현재 이 형제는 신학 연구원에서 신약전서 강의를 맡고 있다.

대전 지방 대회

지난 10월 9, 10일 대전 지방 대회가 한국 서울 선교부의 유진 피 톨 선교부장의 감리로 동대전 지부에서 개최되었다.

9일 토요일 저녁에 가진 신권 역원회 주제는 “니와 내 집”이었다.

이 모임에서 윤 화중 지방부장의 가족(부인과 1남3녀)이 가정의 밤 시범을 보여 모든 참석자에게 가정의 밤을 충실히 갖는 가정이야말로 “지상의 천국”임을 실감하게 하여 주었다.

10일 일요일 오전 총회에서 윤화중 지방부장은 “가정은 어린이가 처음으로 인생의 경험을 쌓는 곳”임을 말하고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전종철 부선교부장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참된 가정교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기욱 형제(대전 지부)는 교회 출판물과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간증을 전하였고, 고 명숙 자매(대전지부)는 어머니를 대회에 모시고 나온 기쁨을 말하며 간증을 하였다.

톨 선교부장은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사랑이 가정에 차고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대회에는 134 명이 참석하였다.

말씀하는 팔머 형제와 청중들(위)

경연대회에 참가한 회원과 선교사(아래)

주한 외국인 국악, 무용, 가요 경연대회에서 교회 회원 우승

지난 9월 21일 시민회관 별관에서 대한 공론사 주최로 개최된 주한 외국인 국악 무용 가요 경연대회에서 우리 교회선교사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물몬 성도들의 상당수가 무용과 가요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47명의 참가자 중 24명의 교회 회원이 참가하여 국악부문에서 미군 지방부 소속 캐롤린 엠 쿠퍼자매가 가요 부문에서도 역시 미군 지방부 소속 자넬 스톤 자매가 각각 최우수 상을 획득하였다. 한편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로버트 웨인 리취 장로와 수전 스펜서 자매가 가요 부문에서 1등을, 미첼 주니어 맥도널 장로와 케네스 패튼 애버리 장로가 2등을, 그리고 브렌트 나일 데밀 장로와 리드 포드 스미스 장로, 멜빈 룬드 장로, 로날드 케이스 파르 장로의 4 중창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전 한국 선교부장 팔머형제 내한

한국 선교부 제 2대 선교부장을 역임한바있는 팔머형제가 세계 일주여행중 2주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들었다.

그는 체류기간 중 9월 17일에는 신학연구원에서 2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종교와 물몬 이즘”이란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했으며, 9월 19일 저녁에는 스테이크 합동 성찬식에 참석하여 참석한 400여명의 성도들과 뜻깊은 시간을 갖고 놀라운 한국 교회 발전에 관해 치하의 말씀과 격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특별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 교회의 여러 지도자와 성실한 성도들 그리고 한국 민족의 위대한 지도력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시온을 굳게 건설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물몬 이즘의 생명은 정체하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활력을 갖고 전진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 하고 간증을 이웃에 전하는 충실한 말일성도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영원히 지켜보는 한국인의 친한 벗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